

본산국¹⁾은, 아방국(父)은 종달리(終達里)²⁾ 어명국(母) 멩호부인,³⁾ 중국(中國) 대국(大國)서 솟아난 한집.

글공부 활공부⁴⁾다 말을 안들어 아방(父) 눈에 굴리나고⁴⁾ 어명(母) 눈에 시찌나⁵⁾ 삼부체(三夫妻)를 귀양정배(定配) 마련⁶⁾한 제주남방국(濟州南方國)을 나올 때, 할락산(漢拏山) 테역장오리 물장오리⁶⁾ 좌정(坐定)하여 좌우천기(左右天機)를 슬퍼 보난 좌정홀 디 못됐다.

오백장군(五百將軍)⁷⁾ 오백선정(五百先生) 구경하여 츠츄츄츄 느려오는 게 송당(松堂里)을 오라네⁸⁾ 금백주⁹⁾를 대국의 대부인(大國大婦人) 설연¹⁰⁾하고 사는다, 대분인이 목이 정정 몰라져 물을 먹젠 하는 게 물혹엿 물¹¹⁾을 먹다네 돛솔(豚毛)이 코레레¹²⁾ 질런¹³⁾ 피가 난다.

집의를 와시난 념편(男便)이 말을 하되

『어찌⁸⁾한 부정(不淨)이 만만⁸⁾하다. 대정(大靜) 마래섬(馬羅島)으로 귀양정배(定配) 나아가라.』

귀양정배 마련⁶⁾하고 요왕국(龍王國)의 들어가 요왕국 말жат말아기(龍王國末女) 소첩(小妾)을 얻어들어오니, 소부인(小婦人)이 말을 하되

『대국의 대부인은 어디 갔읍네까?』

『부정(不淨)이 만만⁸⁾하여 대정(大靜) 마래섬(馬羅島)으로 귀양정배(定配) 보냈노라.』

『이거 무슨 말이우까. 귀양을 풀려사 흡네다.』

소부인(小婦人) 대부인 귀양을 풀리져 돌려 간 보니, 일곱아길 나나 질람더라.¹⁴⁾ 걸레¹⁵⁾도 일곱 지성귀¹⁶⁾도 일곱을 허연 가시난¹⁷⁾

『느¹⁸⁾ 아니민 내 무사¹⁹⁾ 귀양 오느니?』

씨앗싸움을 하느디, 소부인이

1) 난산국과 같음.

2) 구좌면(舊左面)의 지명.

3) 성산면 온평리(城山面溫坪里) 본향당신.

4) 눈에 거슬리어의 뜻.

5) 굴리나다와 같은 뜻.

6) 한라산 중허리에 있는 소명(沼名).

7) 한라산 서쪽 허리에 있는 기암군(奇岩群)

8) 와서.

9) 송당리(松堂里) 당신(堂神).

10) 마련하고의 뜻.

11) 움푹 팬 데 권 물.

12) 코로. 코에.

13) 찢어서.

14) 기르고 있더라.

15) 아기 업는 멜빵.

16) 기저귀.

17) 갔으니. 갔더니.

18) 너.

19) 왜.

『내 그른 게 아니우다. 성님 댜편(男便)네가 그르우다.』

『그레민 느가 일곱아길 업엉 댜편네안틸²⁰⁾ 가라.』

업저내연²¹⁾ 보내여 두고 큰부인은 갯맛(海??)으로 개보말²²⁾ 좇어 먹으명²³⁾ 알손당(下松堂里)
댜편을 좇아 오라 삼부체(三夫妻)가 살아가는디, 뽇즈식²⁴⁾ 손지방상²⁵⁾ 이른??뽇(七十八) 아들즈
손 ??든??뽇(八十八) 나고 삽데다.

어명(母) 아방(父)은 그디 살아봐도 흘 일이 웃어²⁶⁾ 전지(田地) 재산(財産) 즈식(子息)신대 물려
줘 두고 나오는디 좌우(左右)를 흘펴보니, 수산(水山) 올웨믄루²⁷⁾가 좌정(坐定) 흘만하다 허여 좌
정흔 하로산²⁸⁾ 삼천벵매또 일만팔천초깃발.²⁹⁾

정월(正月) 초이틀 신과세(新過歲)

정월 보름(望日) 영등제

이월 열사을(十三日) 영등송별제

칠월 ??드레(八日) 마불림제

동짓들(十一月) 열나을(十四日) 시만국대제일(新萬??大祭日) 받읍네다.

- 城山面 水山里 女巫 趙玉仙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686-688.

20) 댜편네한테를.

21) 업혀서. 업혀내어서.

22) 고동류인데 아주 작은 것.

23) 주워 먹으면서.

24) 딸자식.

25) 손자친족.

26) 없어.

27) 수산리(水山里)의 지명. 본향당이 있는 곳.

28) 한라산이란 뜻으로 이 당의 신명(神名).

29) 이 당신(堂神)의 하위신이며 당신을 호위하고 심부름하는 신.